

씨월드고속훼리, ‘Best HRD’ 우수기관 재인증 쾌거

2023년 연안여객선사 최초 인증 이래
노동부 인적자원 성과↑ 민간기관 선정
현장 연계 입문 교육·디지털 심화 훈련
CEO 차담회·멘토링 등 밀착 소통 제도
이종훈 대표 “업계 인재 육성 선도할 것”

제주 기점 연안여객선사 씨월드고속훼리(주)가 사람 중심의 인적자원 개발 성과를 다시 한번 공인받으며 인재 경영 선도 기업으로 우뚝 섰다. 20일 씨월드고속훼리에 따르면 최근 서울 페어몬트 엠배서더에서 열린 2026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수여식에서 우수기관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2023년 연안여객선사 중 최초로 Best HRD 인

증을 획득했던 씨월드고속훼리는 올해 심사를 거쳐 재인증에 성공하며 채용부터 교육, 성장에 이르는 체계적인 인재 관리 시스템을 증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제도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과 재직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성과가 뛰어난 민간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사업 영역 확장에 발맞춰 지역 우수 인재 확보를 미래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삼아온 씨월드고속훼리는 심사에서 맞춤형 역량 강화 제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공채채용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 ▲선박 승선 체험 연계 입문 교육 ▲육·해상직 직무 및 안전·외국어 교육 ▲AI 등 직무별 디지털 역량 강화 ▲멘토링 및 CEO 차담회 운영 등이 꼽혔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최근 2026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씨월드고속훼리 제공〉

선박 승선 체험 입문 교육은 씨월드고속훼리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신입·경력사원이 직접 선박에 올라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를 체험하고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해 낸다. 해상은 송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곧바로 현장 실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재직자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직무, 안전,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AI 리터러시 교육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이를 기능별·직무별 심화 과정으로 고도화하고 신입사원 입문 교육에도 AI 활용을

확대하는 등 임직원의 디지털 전환 적응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수평적이고 활기찬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밀착형 소통 제도도 빛을 발했다. 신입사원의 적응을 돕는 ‘정착 온도 점검’을 비롯해 대표이사가 직접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CEO 차담회,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입사 초기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며 사내 체육 행사와 패밀리데이 운영으로 직원 화합을 이끌고 있다. 이종훈 씨월드고속훼리 대표이사는 “회사가 빠르게 변화하고 팽창할수록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인재를 확보하고 성장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직원의 성장이 회사의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단단히 다져, 연안여객업계의 인재 육성을 선도하는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2026 나주영산강축제 역대급 가족 체험 놀이터 ‘활짝’

내달 7-11일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개최
미술학교 등 7개 직업 ‘키자니아’부터
천연염색·금동관 만들기 등 체험 다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올가을 영산강정원 일대를 거대한 가족 체험 놀이터로 탈바꿈시킨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월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2026 나주영산강축제를 개최한다. 기존 관람형 공연이나 전시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는 놀이·교육·역사·과학기술을 아우르는 융복합 콘텐츠를 배치했다. 대표 프로그램은 놀이와 교육을 결합한 ‘키자

니아 직업체험’이다. 축제장 내에는 119구급센터, CSI 과학수사대, 승무원 교육센터, 치과, 경찰서, 뷰티살롱, 미술학교 등 총 7개 분야 직업 체험 공간이 조성된다. 어린이들은 각 부스에서 실제 직업의 업무를 경험하며 자신의 숨겨진 적성과 꿈을 탐색해 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세대 간 벽을 허무는 소통의 장도 마련된다. 단순한 테이블 게임을 넘어 협동과 추리,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보드게임 공간을 확대 운영해 조부모부터 손자녀까지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활동적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대형 에어바운스도 안전 관리 시스템 속에서 운영된다. 무선조종 장치로 물 위를 시원하게 가르는 RC



나주시가 오는 10월7일부터 닷새간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2026 나주영산강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2025나주영산강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보드게임을 즐기는 모습. 〈나주시 제공〉

보트 조종 체험과 함께 다인성 전동카트 체험이 마련돼 직접 조종하고 탐험하는 이색 액티비티 체험도 축제의 재미를 극대화한다. 이 밖에 나주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은 역사·

문화 및 첨단 기술 체험을 운영한다. 지역 대표 문화자원인 천연염색을 활용해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마한의 역사를 배우며 직접 금동관을 제작해 보는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여기에 가상 공간과 현실을 융합한 확장현실(XR) 실감형 콘텐츠를 도입해 평소 접하기 힘든 미래 기술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한껏 자극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영산강축제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새로운 직업 세계와 첨단 과학기술, 그리고 나주의 빛나는 역사 문화를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어린이에게는 잊지 못할 배움의 즐거움을 부모와 조부모에게는 가족이 함께 웃을 갖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가을 나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2026 나주영산강축제’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뮤지컬, 클래식 등 날짜별 테마 공연과 미식, 정원 전시 등을 풍성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나주=정종환 기자

전남광주특별시 서남권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 취재수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며 행정체계를 구체화할 조직의 큰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을 들여다볼수록 “그렇다면 서남권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하나 남는다. 조직개편의 특징은 권역별 기능 배분에서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광주는 행정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심 기능이 강화되고, 동부권은 산업·투자·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거점의 역할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은 통합특별시에서 어떤 미래를 담당하게 되는가. 무안청사에도 적지 않은 행정기능이 배치됐지만 통합특별시의 조직을 단순히 ‘어느 지역에 몇 개 부서가 배치됐느냐’라는 숫자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움직일 핵심 권한과 전략 기능이 어디에 자리 잡느냐다. 부서의 숫자가 아니라 권한의 무게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조국현 전 전남도 의원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진 바 있다. “통합은 흡수가 아니라 균형 있는 재설계여야 한다”, “전남·광주 통합, 서남권 없이 가능한가?”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한 지금 이 질문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통합은 단순히 광주와 전남의 행정조직을 하나로 묶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각 지역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연결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성장축을 어디에 만들어낼 것인지가 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서남권은 결코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다. 신안에는 대규모 해상풍력이라는 에너지 자원이 있고, 해남은 AI·데이터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목포에는 항만·물류와 해양산업이라는 오랜 산업 기반이 자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자원들이 하나의 미래전략으로 연결돼 있느냐는 데 있다. 신안의 해상풍력과 해남의 AI·데이터 산업, 목포의 항만·물류 및 해양산업을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한다면 서남권의 미래상은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며, 항만과 물류를 통해 산업을 연결하고, 해양산업으로 확장하는 구조다. 물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략으로 묶고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미래전략 기능이 필요하다. 광주가 행정·정책의 중심 기능을, 동부권이 산업·투자의 거점 역할을 한다면 서남권 역시 통합특별시 안에서 분명한 전략적 역할을 가져야 한다. 그 역할은 단순히 통합 과정에서 남겨진 행정기능이어서는 안 된다.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연결해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권역 간 격차를 줄이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개편안의 의회 통과를 통합의 완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 서남권이 통합특별시 안에서 단순한 행정서비스 제공 공간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과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는 향후 정책 결정에 달려 있다. 조직개편안 통과는 시작이다. 통합의 이름 아래 지역별 기능을 나누는 데 그칠 것인지, 아니면 광주·동부권·서남권의 강점을 하나로 연결해 새로운 성장지도도를 만들어낼 것인지, 전남광주특별시의 진짜 설계도는 이제부터 그려야 한다.

한빛원자력본부, 작업 현장 안전 점검 실시

노동부 주관 상생협력 사업 일환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는 20일 “최근 고용노동부 주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종합 차량 보관동 신축 공사 등 총 13개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현장 위험 요소 발굴·개선 여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통한 위험 정보 공유 ▲실제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살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개선하도록 조치해 재해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 7·9일에는 발전소·협력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초청 특별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현장 점검 결과 안전 관리가 가장 탁월했던 ‘시큐텍’을 우수 부서로 포상하며 자발적인 안전 문화 확산을 독려했다. 한빛본부 관계자는 “협력사와 긴밀하게 연대해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를 빈틈없이 강화하겠다”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근로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무안군,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오늘부터 내달 12일까지 1인1건 한정
안전 환경·지역 활력 등 총 3개 분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20일 “2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026년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무안,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더 활기차게’를 주제로 군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에 방점을 찍었다. 세부 공모 분야는 ▲생활 불편 개선 ▲안전·환경 개선 ▲지역 활력 제고 등 총 3개 부문이다. 무안군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인 1건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서 서식을 작성해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무안군청 기획실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

완도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오늘 시작

올해 어린이 대상 13→14세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은 20일 “예년보다 이른 독감 유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국가 지원 대상이 기존 13세에서 14세로 확대됐다. 65세 이상 고위험군 어르신의 접종은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다. 75세 이상은 다음 달 6일, 70~74세는 12일, 65~69세는 15일부터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이어 같은 달 19일부터는 완도군보건소·의료원·보건지소에서 15~64세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도 시작된다. 국가 무료 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관 명단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완도군 관계자는 “최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적기 접종이 필수적”이라며 “연령대별 접종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일상 속 개인위생 수칙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완도=윤보현 기자